

'270억대 침수 피해' 원인 규명 촉구

광주상공회의소 "침수 재발 방지 대책 마련해야"

침단 142개사 200억원·평동 41개사 70억원 피해

광주상공회의소가 지난 폭우에 270억원 대의 침수 피해를 본 지역 산업단지 입주기업들을 대표해 신속한 복구와 함께 피해 원인규명, 향후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관계기관에 촉구하고 나섰다.

광주상의는 지난 7~8일 연이틀간 450mm 안팎의 폭우에 광주 침단 국가산업단지과 평동산업단지 입주기업 183개사가 침수 피해를 입은 것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산업단지공단, 광주시, 광주구청 등에 이같이 대책마련을 건의했다고 24일 밝혔다.

침단·평동산단 폭우 피해 기업들은 침수원인을 영산강과 황룡강보다 낮은 저지대에 놓인 배수관 시스템과 턱없이 부족한 배수 처리용량 문제 등을 주요 원인으로 보고 있다.

특히 폭우에 강 수위가 상승했을 때 빗물 배수관을 통해 강물이 산단 내로 역류했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문제를 집중 제기하고 있다.

지난 폭우로 인해 침단국가산단의 경우 입주기업 142개사가 200억원 대의 침수 피해를 봤다.

평동산단 입주기업 41개사도 70억원 대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이들 피해 기업들은 원재료와 완제품은 물론 공장 내 설비기계까지 침수돼 앞으로의 생산 활동까지 걱정해야 하는 위기 상황에

놓여 있다. 광주상의는 구체적으로 침단산단 1단계에 대해선 '장성 진원면과 침단산단 경계면 배수 체계 점검', '광주담·담양댐 방류시 침단산단 내 우수관 역류 가능성 조사와 대책 마련', '장마철 침단산단 내 우수관과 주변 공원에 대한 철저한 관리 대책' 마련 등을 관계기관에 건의했다.

◇장성(진원면)과 침단산단(월출·대촌동) 경계면 배수 체계 점검

다수의 산단 입주기업들은 장성군 진원면 농수로로 통해 유입되는 빗물이 침단국가산단 1단지 초입 우수관의 '용량 부족'으로 신속한 배출이 어렵다는 점에서 배수처리 문제를 제기했다. 이들 입주사들은 충분한 점검과 보완대책 수립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광주담·담양댐 방류시 침단산단 내 우수관 역류 가능성 조사·대책 마련 촉구

피해 기업들은 '집중호우 기간 영산강 상류에 위치한 광주담과 담양댐에서 다량의 물을 방류해



지난 7~8일 광주·전남지역에 쏟아진 집중호우 때 침수된 광주평동산단 입구와 인근 광주지하철 평동역사 모습.

영산강 하천 수위 상승으로 산업단지 우수관이 역류했다'며 문제를 제기함에 따라 이에 대한 조사와 대책 마련도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 밀집한 '평동산단 침수피해 재발방지책' 마련 촉구

광주상의는 평동산단에 대해선 '평동역 부근 우수관·황룡강 배수관 배수체계 점검과 황룡강 범람 방지대책 마련', '황룡강 상류의 장성댐 방류시 평동산단 내 우수관 역류 가능성 조사·대책마련' 등을 건의 했다.

지난 폭우 때 평동산단은 광주지하철 평동역 주변을 중심으로 침수 피해가 집중됐다. 피해 기업들은 평동역 주변 우수관의 배수처리 용량 부족 때문에 침수 피해를 봤다며 이에 대한 문제를 집중 제기 하고 있다. 피해 기업들은 대

대적인 배수 용량 점검과 산단 안으로 황룡강 강물이 범람하지 않도록 종합적인 보완대책 수립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장성댐 방류시 평동산단 내 우수관 역류 가능성 조사 후 대책마련 촉구

평동산단 침수피해 기업들은 황룡강 상류에 위치한 장성댐에서 집중 호우시 다량의 물을 한꺼번에 방류해 급속한 황룡강 수위 상승으로 하천물이 산업단지 내로 역류했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조사 후 방지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들 기업들은 역류 가능성이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올 경우 침수피해 재발 방지를 위해 평동산단 인근에 위치한 황룡강 준설에 대한 필요성도 함께 건의했다.

김민정 기자

여수해경, 불법영업 낚시어선 단속... 8건 적발

전남 여수해양경찰서는 여름철 낚시어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특별단속을 벌여 8건의 위법행위를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여수해경에 따르면 여름철 휴가 기간 낚시객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15일부터 24일까지 특별단속 결과 낚시관리법 및 어선법, 선박직원법 위반 등 8건의 낚시어선을 적발했다.

구명조끼 미착용, 해기사 면허증 미비, 승객준수사항·신고필증 미게시 등으로 8건 중 6건이 낚시어선 승객의 안전과 직결되는 위반 사항이었다.

여수해경관계자는 "다수의 이용객을 태우고 원거리 영업을 하는 낚시어선은 사고 발생 시 대형인명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낚시어선업자의 철저한 안전의식과 책임감이 필요하다"고 했다.

"기아차 취업 돕겠다" 속여 거액 가로챈 2명 입건

대기업 취업을 빌미로 사기 행각을 벌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경찰청은기아자동차 광주공장 취업을 빌미로 거액을 행진 혐의(사기)로 A씨 등 2명을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 등은 구직자들을 상대로 '기아자동차 광주공장에 취업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속여 거액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채용 과정에 관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으며, 가로챈 돈은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를 호소하는 일부 구직자들은 '지역 교회 목사가 650여 명을 대상으로 총 154억 원을 가로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금전 문제로 아버지 폭행·감금 30대 아들 실형

사업과 금전 문제로 불화를 겪던 자신의 아버지를 폭행하고 손과 발을 묶어 7시간30분 가까이 감금한 30대 아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노재호 부장판사)는 중준속감금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2월13일 오후 3시에 한 지역 자신의 아버지 B(68)씨의 집에서 B씨를 폭행하는가 하면 B씨의 손과 발을 묶고 같은 날 오후 10시25분까지 감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에게 주식처분을 요구했으며, 이에 B씨가 '다음 날 아침 침에 주식을 팔아 주겠다'고 하자 '내일 아침 주식을 팔 때까지 잡고 있었다'며 B씨를 감금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B씨가 입은 상해 중 가장 중한 부분의 경우, A씨가 결과를 확정적으로 예상했거나 의도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A씨가 직접 가격했던 부위는 타박상의 정도에 그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감금의 시간이 약 7시간 반 정도로 상당히 길고, B씨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손과 발을 묶어 고통을 주는 등 범법 수법이 매우 나쁘다"고 지적했다.

"잡아가지마" 차탈이 중학생, 경찰관에 주먹질

광주 광산경찰서는 24일 차탈이를 한 직후 체포를 면할 목적으로 경찰관을 때린 혐의(준강도 등)로 나이지리아 국적 중학생 A(14)군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A군은 지난 23일 오전 2시에 광주 광산구 월곡동 한 골목에 주차된 차량에 들어가 3만 원을 훔친 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3명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A군은 차량 문을 열고 다니는 모습이 광주시 관제센터에 찍혔고, 곧바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체포되지 않으려고 난폭한 행동을 반복한 것으로 드러났다.

A군은 경찰에 "가출한 이후 생활비를 마련하려고 범행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A군이 최근 다른 차량을 수차례 던 정황을 확인, 보강조사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광주 상무고 "교실~아파트 20m 웬말...학습권 침해"

호남대 쌍촌캠퍼스 공동주택 관련 교직원·학운위 반발



광주 도심의 마지막 노른자위로 불리는 호남대 쌍촌캠퍼스 부지에 아파트 건립이 추진중인 가운데 인근 광주 상무고가 학습권 침해 등을 주장하며 강하게 반발

하고 나섰다. 상무고 교직원과 학교운영위원회는 24일 입장문을 통해 "호남대 쌍촌캠퍼스 공동주택 건설과 관련한 시행사의 알맹이 없는 대책에 분노하며 광주시는 형식적 공청회를 통한 우롱을 중단하고 학교구성원들의 의견을 수용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지난 20일 공청회가 열렸지만 시행사는 반박된 주장만 할 뿐 본질적인 문제에는 어떠한 대안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

다"며 6가지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이들은 우선 "오전 7시부터 밤 10시까지 학교에 머물며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기를 보내고 있는 학생들이 교실에서 손만 뻗으면 닿는 높이에서 수십 층의 건물, 그것도 3년 동안 공사가 계속한다면 학습권은 물론 학교생활도 가능하겠느냐"며 "학교 실정부터 제대로 파악할 것"을 요구했다..

또 "교실에서 아파트까지 거리가 20m에 불과한게 말이 되느냐"며 "건물 간 간격을 50m 이상으로 둘 것"을 요청했다.

이어 '급식실, 체육관, 교실 등

이 아파트 1층보다 6m 아래에 위치하다보니 코로나보다 위험하다는 비난받기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며 "안전한 방진막 설치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라"고 주장했다.

이밖에 학교와의 거리가 20m, 담장과는 10m이며 방음벽과 공사장은 5m도 안 되는 115동 건물의 위치·설계변경과 방음벽 안전 대책, 소음·진동 방지 대책도 함께 요구했다.

이에 광주시나 시행사 측은 '법적기준에 부합되고, 피해 예상 건물이 급식실과 도서관이어서 교실수업과는 큰 상관이 없을 것'이라는 기본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인호 기자

서버구축 및 운영

홈페이지 제작, 인터넷신문, 쇼핑몰 제작

준솔루션

문의 : junsol@junsol.com